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호 [루게 제24811호] 주제104 (2015)년 2월 2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훌륭히 수행하고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으로 표창휴가를 갖던 전투비행사들을 귀대하기에 앞서 당중앙위원회총서로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한없는 행복으로 하여 전투비행사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여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집무실에서 나오시자 전투비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비행사들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 총대전우로 믿고 내세워주시며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를 려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전투훈련에 참가하였던 차준식, 조규향, 립설, 한광민, 강경철, 신대성, 김영성, 김은혁, 신우현준, 최광철, 김현웅, 김광남, 홍진규, 최동철, 김창호, 정영남, 조상기동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고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하늘초병들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인 불굴의 육탄 정신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별

처럼 빛내여가고있기에 당의 비행전투훈련명령을 훌륭히 수행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앞으로 도 비행훈련을 극악한 정황속에서 계속 강도높이 진행하여 원수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백두의 칼바람같이 단숨에 날아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의 결사대,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주체적항공무력이 있기에 선군조선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라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비행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그들을 한명하명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또다시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기념 촬영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를 목청껏 부르는 전투비행사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받아안은 전투비행사들은 비행싸움준비완성을 위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에도 없는 가장 위력한 무기인 수명결사옹위정신, 육탄, 자폭정신을 안고 멸적의 폭음소리 높이 울리며 적들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김정은붉은비행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 참가자들, 중요대상 건설에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의 참가자들, 중요대상건설에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의 몸소 마련해주시고 회의와 강습내용, 국가표창수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오늘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수많은 중요건설대상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 친히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건설을 철두철미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기동,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2014년에도 결사관철의 정신,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을 발휘하여 1월8일수산사업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5월1일경기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10월8일공장 등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

하였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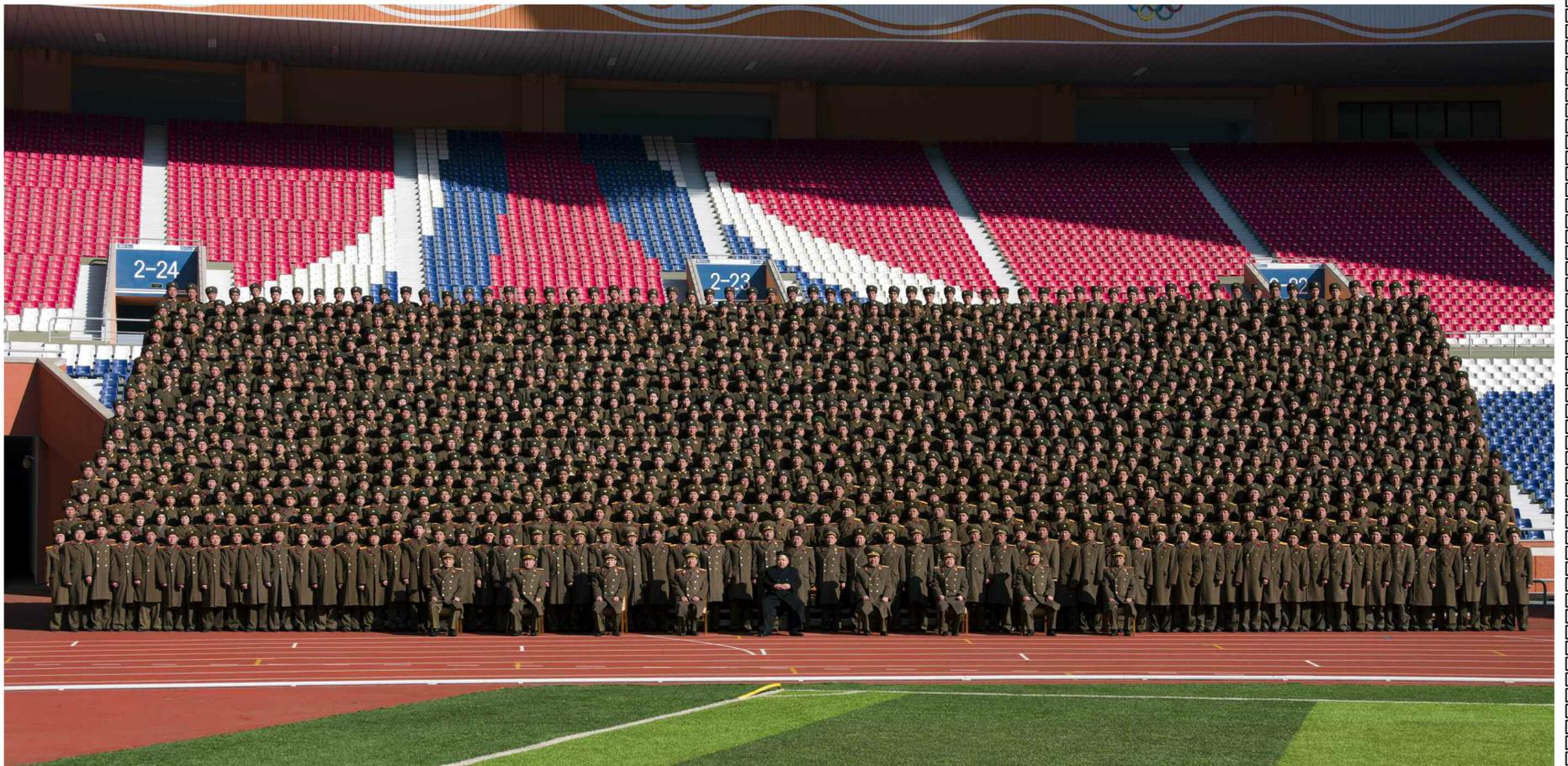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건설령도업적과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구자, 본보기인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다시금 폭발시켜 부강조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또다시 창조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회의를 통하여 지난해 대상건설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선 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하시면서 회의참가자들, 중요대상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4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 참가자들, 중요대상 건설에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인

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결사판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더없는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올해에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선

인민군의 돌격속도로 온 나라 인민을 총공격전승리로 선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으로 인민군대가 맡은 중요대상건설을 당이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최상의 높이에서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렬철성동지, 조경철동지, 김경관동지가 동행하였다.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는 조선속도, 일당백공격속도로 맡겨진 대상건설을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하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적극 리용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많은 기공구들을 창안제작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맡겨진 대상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회장에 인민군대에서 새로 창안제작하였거나 장비하고있는 350여종에 35만점의 각종 기공구들이 전시되어있는데 정말 볼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여러가지 조건과 환경속에서 품이 많이 드는 건설공사를 제기일내에 질적으로 완공하자면 능률이 높은 각종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있어서 기공구는 전투무기나 같다고 하시였다.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맡겨준 건설대상을 불이 번쩍 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고 헌신분투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치하시였다.

인민무력부 기공구전시회는 여러 단위들사이에 기공구와 관련한 문제들을 서로 교환하고 일반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부문을 비롯 한 사회의 일군들에게도 보여주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일을 험하게 하면서도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하자면 기공구의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에게 여러가지 건설설비들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고 튼튼한 공업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현대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계공장들과 건설부문들에서는 기공구를 자체로 생산하며 우리 식으로 새롭게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5 면 으 로 계속



